남부야학 50년… '배움 갈증' 풀어준 오아시스

김성한의 **남구 멘토에 길을 묻다**

⑤ 남부야학 최종용 교감

지하계단을 따라 지하1층을 내려가니 149㎡(45평) 공간에 교실 2개와 교무실이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한 걸음 늦었지만 두 걸음 빠르게' 교훈이 걸린 초등·중등부 교실에선 할머니들 한글 수업이 한창이다.

남부야학으로 더 잘 알려진 문현동 남부중고등학교가 올해로 50년을 맞았다. 여느 정규학교였다면 성대한 개교기념식을 열었겠지만 변변한 생일상 없이 쓸쓸히 지나갔다.

1972년 2월 대연동 공터에서 천막학교로 시작한 남부야학은 이듬해 대연성당으로, 다시 1977년 옛 남부경찰서 내부로 이전하면서 교명을 남부실업학교로 정하고 전성기를 맞았다. 하지만 2008년 남부경찰서가 황령터널 인근 대동골로 옮기면서 학교는 문현동으로 두차례 이전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는 사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주민 3000여명이 이곳에서 배움의 갈증을 풀었다.

천막학교로 시작… 3000명 배출 카이스트·미국 유학 간 졸업생도

남부야학 최종용 교감에게 50년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2000년 수업봉사로 남구야학과 첫 인연을 맺었다. 당시 부산정보고등학교 국어교사를 근무하던 그는 2006년 정년 퇴임 후 남부야학 봉사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2000년 이전 만해도 학교에 활기가 돌았어요. 50~70명 정도가 수업을 들었는데 열기가 뜨거웠죠. 남부야학을 통해 카이스트에 합격해 미국 유학을 간 졸업생도 있었습니다."

남부야학은 원래 학교 밖 청소년이나 생활고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위해 검정고시 준비를 돕는 중·고등부 과정만 운영했다. 그러다 최 교감은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주위에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고 2012년부터 한글을 가르치는 성인문해반을 개설했다. "어르신들이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맞춤법, 받아쓰기 등 한글의 원리와 규칙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수업을 받고 나면 한결 같이 '왜 이제야 남부야학을 알았을까' 후회를 하세요."

남부야학은 검정고시 대비반인 초등, 중등, 고등부 3개반을 운영한다. 안타깝게 고등부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대안학교로 가거나 성인의 경우 시험없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는 피부미용학교 등으로 빠지면서 학생 수가 급감해 지난해부터 폐강했다. 현재 70대 중반의 초등부 10명과 50~60대 중장년 중등부 8명이 수업을 듣고 있다. 초등부는 월수목 두시간씩(오전 10~12시), 중등부는 월화수목 하루 3시간(오후 6시~9시) 주4회 진행한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남부야학의 강사진은 대부분 전·현직 교사들로 강의 수준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 국어 정교사 출신에 국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최 교감도 직접 수업을 진행한다. 중고등 검정고시는 연2회(4월, 8월) 교육부에서 국비로 실시하며 2년 정도 수업을 들으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고 한다.

22년 전 국어수업 봉사로 인연 퇴임 후 야학 교감으로 인생2막 월세 걱정 없는 공간 얻는 게 꿈

현재 남구청과 교육부로부터 한해 12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지만 집세를 내고 나면 학교 운영비도 부족해 뜻있는 독지가의 도움의 절실하다. 팔순을 훌쩍 넘긴 최 교감은 "남부야학이 월세 걱정 없이 수업을 할 수 있는 무료 공간을 얻는 것이 마지막 남은 꿈"이라고 말했다. 부산남구신문 편집장

*남부중고등학교(남부야학)에 입학 혹은 도움 주기를 원하는 분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622-1205 ☎010-4543-4746

남부야학 최종용 교감이 한글교실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지역사회를 밝히는 대연sk뷰상가의 상가입주자들.

'선한 영향력' 실천한 대연SK뷰상가의 기적

상가입주자들 '코로나 2년' 위탁가정아동 등 후원 한명 시작하자 너도나도 동참… 재능기부도 잇달아

엄혹한 시기, 코로나 바이러스만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은 아니다. 봉사, 나눔, 배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돼 주위를 밝힌다. 대연동 대연SK뷰상가는 이런 '선한 영향력'이 넘치는 곳이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소소한 나눔이 이웃 점포와 가게로 옮겨가 어느덧 상가입주자 절반 가까이가 동참하고 있다.

'감염의 출발'은 원할머니 보쌈의 강정호 대표였다. 코로나19가 막 덮친 2020년 3월 남구 내 아동보호시설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보쌈도시락과 고기, 문화상품권 등을 후원했다. 이 이야기는 옆집 유창부동산 대표이자 상가번영회를 이끄는 남성진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좋은 일을 혼자만 하면 어떡하느냐"며 남 회장이 강 대표의 통장으로 매달 후원금을 입금하기 시작했다. 이어 남 회장을 통해 이런 소문이 상가 전체로 퍼졌고 다른 상가입주자들도 십시일반 강 대표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 왔다. 코로나 사태 2년간, 도시락, 운동화, 상품권, 노트북, 후원금 등 나눔을 실천한 금액이 700만원을 훌쩍 넘는다. 물질적 후원 외에도 필라테스 원장은 무료 필라테스 수업을, 미용실 주인은 무료로 머리를 손질해주는 등 재능기부도 잇따르고 있다. 강 대표는 "가게가 어려워 후원활동을 그만 둘까했는데 그럴 때마다 주위에서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와 그만둘 수 없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상가입주자들이 각별히 신경 쓰는 후원 대상은 가정위탁아동들이다. 친부모의 부재나 학대, 방치 등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일반 가정에 맡겨져 생활하는 아이들로 보호시설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원이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공부해 대학에 들어간 가정위탁아동 4명에게 대학입학 축하금을 후원하기도 했다. 행여 위탁아동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후원은 직접 하지 않고 남구청을 통해 간접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올해 대연SK뷰상가 번영회는 '작은 계획' 하나가 생겼다. "상가 앞 광장이 크고 넓은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저소득 어르신들을 모시고 보쌈과 고기를 마음껏 대접하고 싶어요."

택시에 놓고 내린 지갑 찾아준 CCTV관제요원

"택시에 지갑이 든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문현동 무학프라자 앞, 주민 A씨가 택시 뒷좌석에 지갑이 든 가방을 놓고 내린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택시는 이미 떠난 뒤였다. 다급히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남부경찰서로 향했고 신고를 접수 받은 담당 경찰은 곧바로 남구CCTV통합관제센터로 연락을 취했다. 마침 해당 지역을 모니터링 하던 전창훈(사진) 관제요원이 CCTV를 검색했다. 하지만 저녁 무렵이어서 CCTV화질로는 택시 번호판 판독은 불가능했다. 빠르게 이동하는 택시의 특성상 현장 화면이 아니면 '추적 조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 관제요원은 CCTV화면을 다시 응시해 흩어진 단서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화면 속 택시는 쏘나타 차량에 대시보드 커버가 특이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이 단서를 바탕으로 택시의 예상 경로에 설치된 4대의 CCTV화면을 시간대별로 조회한 끝에 도로 위에 멈춰 있는 택시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었다. 경찰은 해당 택시 기사와 연락이 닿았고 분실물을 회수할 수 있었다. 신고가 접수된 지 30분 만이었다. 가방을 되찾은 주민은 "관제요원에게 사례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중히 거절했다.

김태유 병원장·㈜옵스, 우수납세자 표창

부산시는 지난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윌리스요양병원 김태유 병원장(사진)과 제과·제빵업체 ㈜옵스(대표 김상용)를 지방세 우수납세자로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

신경과 전문의인 김태유 병원장은 새마을운동 남구지회장을 역임하면서 남구 장학재단과 남구문화원에 기금을 기부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운동'을 솔선수범한 공로 등이 인정됐다.

또 감만동에서 제과·제빵 제조업을 하는 옵스는 성실한 납세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한 것 외에도 요양시설·시설지원센터 등에 빵을 후원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점 등이 인정됐다.

유료광고
새참빛 요양보호사 교육원
수강생 수시모집(주간반/야간반/자격자반)
강사 수시 모집
2008년 개원 우수한 강사진 최다 합격 보장
새 참 빛 재 가 복 지 센 터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무료 등급신청 상담
유엔교차로 석포농협 옆 파리바게트 3층
☎ 623-0698 / 010-5600-3763

반석 요양 보호사 교육원
4월 중 개강 남 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가능
수강생 수시모집 / 강사 수시모집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종일반 / 야간반 / 자격증반)
반석바우처센터운영 / 대상 :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취업
반석방문요양센터(장기요양 1~5등급 방문요양 / 방문목욕서비스제공)
반석복지용구(복지용구판매 / 대여 / 정부지원) - 전동침대 / 휠체어 외 다수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요양상담 ▶요양보호사 취업상담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광고
상담 남구 용호동 농협 하나로마트 용호점 100M전
☎ 621-1488~9 / 010-2856-5482

신일 이불 솜공장
유료광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 헌솜을 틀어서 새솜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숙련된 전문가가 직접 이불 꿰매 드립니다.
■ 혼수이불, 침대카바, 애기이불 있습니다.
■ 100% 목화솜, 명주솜, 베개솜 있습니다.
■ 사찰 방석 주문·제작
☞위치 : 남구 동명로 146번길 47(용호동)
☎ 051)626-3558 / ☎ 010-3831-2457

보이차 올가나스토리/랑운칠자
유일한 직영공장 소유 / 정식 식약처 통관제품
품격높은 보이차 생활을 믿고 할수 있는 브랜드
ORGANA STORY
七子餅茶 칠자랑운
● 진년 老茶
* 저장용 보이차 전문 상담
* 매년 봄차 입고
● 생활茶를 올바르게 할수 있는 교육장소
사단법인 : 茶學堂 / 茶文化 교육의 정석
● 홍차 및 무이암차 / 6大다류 취급
● 방문시 사전 예약필수
유료광고
문의 : 010-7645-8811 |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72 3층 (문화쌈밥 건물)

사람을 찾습니다
유 성 곤(59.10.20.)
본적 : 부산진구 범천동 721번지
누나가 동생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주위에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문현동에 45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연락처 ☎ 607 - 4071
유료광고

"불경기 및 정년없는 인생이모작 준비하십시오"
치매전문인력양성 기본과정 수강생 모집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따른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인 신라대 평생교육원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업무협약 체결기관)에서
치매 전문인력 양성 기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모집안내 : 방문상담 후 상시신청 가능(50~60대 여성 우대)
● 수 강 료 : 치매전문인력 양성 기본과정 158,500원
● 운영과정 : 주1회 야간 출석수업(6주과정 총 24시간)
● 문 의 : 신라대 평생교육원 예음관 109연구실
☎010-6565-8155, 051-999-6415
유료광고